

삶의 중심

작성일 : 2012. 3. 18 (일) 밤기도

작성자 : 정수영 (월명동교회, 석막담당)

요즘 이리저리 일을 하다 보니 기도 시간을 계속 놓치게 되었고 하늘 일을 하는 것이니 기도를 좀 못해도 괜찮겠지 생각했었습니다. 하지만 자꾸 기도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심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.

* 예수님 말씀 *

기도하지 않으면
나 예수와 통할 수 없다.
난 영으로 존재하기에
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통할 수 없어.
신령한 기도, 네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
나와 일체 되고 신령해져야
너의 삶이 나의 삶으로 되는 것이다.
기도에 잠들어 있지 말아라.
기도의 잠이 들면
네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하나
막히게 된다.

사람이 살아가면서
가장 기본이 호흡이지 않느냐.
호흡이 막히면
가장 먼저 생명에 위협이 있게 되고
모든 육신의 기능이
하나하나 막히고 멈추게 된다.
기도는 나 예수와의 호흡이며
네 삶뿐만 아니라
네 영까지 나에게로 오고가는 수단이다.
기도가 절대 막히면 안 돼.
절대!

눈에 보이지 않아
기도를 한 두 번 안해도 금방 표가 나지 않지만
기도의 길이 계속 막히면 가장 치명적이다.
지금은 더더욱이 기도할 때이다.
삶의 중심을 기도함에 잡아라.
기도는 나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
성삼위와의 대화다.
네 선생과 근본으로 통하는 길이다.

기도함을 중심에 잡고
네 모든 삶을 운행하여라.
그것은 곧 나 예수를 중심해 사는 삶이다.
기도를 사모함으로 하는 것은
나 예수를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니
기도하기에 힘쓰라.

나를 찾는 것에 힘쓰라.

절대 일에 빠지지 말아라.

일을 함에 근본이 무엇이나.

나 예수를 위함이 아니더냐.

진실로 무엇이 중심인지, 핵인지 모르면

모든 만사 흐트러지게 된다.

선생 보아라.

수많은 산더미 같이 쌓인 많고도 많은 일

나 예수가 중심되어 행하니, 기도로써 행하니

남이 1년이 되어도 못할 일

바로바로 해 낸다.

그래도 선생 그 삶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다.

나의 중심에서 그가 중심역사를 이끌어 가는

핵이 되어 온전히 모든 일을 행한다.

나의 일을 맡은 자들 모두

나의 중심에서 삶의 중심을 잡고 행하여라.

새벽에 날 만나 기도하고

하루 삶 속에 시간을 정하여 나를 만나는 것은

중심을 잡고 행하는 것이니

모든 육의 일이든, 영의 일이든

나의 손과 발이 되어 행하는

너희 모두는 기도의 중심을 잡고

나 예수와 또 너희 선생과

너의 온 영, 혼, 육이 일체 되어

중심을 통해 행하여라.

(순간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.

중심축이 기도이고

그 주변에 많은 일들이 보였습니다.)

기도로 중심을 잡고

그 중심을 통해 모두 행해야 된다.

진실로 권면하노니 경히 여기지 말고

삶의 중심을 잡을지어다.

사랑한다. 주 예수.